POLICY BRIEFING
ISSUE 29 / 2026. 1.
5 GENDER EQUALITY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연구자료
사회 2026-01-094

[성평등] 변화와 압박, 글로벌 젠더개발협력은 안개 속으로

1. 일반 정보

이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성평등네트워크(GenderNet) 정례회의는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과 전 세계적인 성평등 반발(Backlash) 기조, 그리고 2025년 이후 예상되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의 구조적 감소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고 성평등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으며, 회원국 간의 비공개 기술 회의(1, 3일차)와 파트너 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회의(1, 2일차)로 구성되었다. 회의에는 DAC 회원국 대표단을 비롯하여 UN Women, 다자개발은행(MDBs) 등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CSO), 민간 재단 등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이 참석하여 성평등 의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연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2. 핵심내용

첫째, 글로벌 ODA 규모 축소 전망에 따라 공적 원조를 넘어선 민간 투자 및 혼합 금융 등 다양한 재원 동원 전략('ODA and beyond')이 필수적임이 강조되었다.

둘째, 단순 젠더 마커 부여를 넘어선 데이터 품질 검증(QA) 강화와 기존 평가 기준 내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과학적 성과 측정 체계 구축이 논의되었다.

셋째, 기후변화, 분쟁 등 복합 위기 해결을 위해 성평등을 독립된 과제가 아닌 핵심 동인(Driver)으로 접근하는 '넥서스(Nexus)' 전략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3. 주요 내용

① DAC 개혁 및 재원 확보 전략 (ODA and Beyond)

OECD 개발협력국은 2025년 ODA 규모가 2024년 대비 최대 17%까지 감소하고 2027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감소세는 최저개발국(LDC)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 지역에 집중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성평등과 밀접한 성생식보건(SRHR) 지원이 23~43%가량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재원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ODA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 혼합 금융 등 'ODA를 넘어선(ODA and beyond)' 다양한 개발 재원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성평등이 단순한 인권 문제를 넘어 국익과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서사(Narrative)를 강화하여 재원 확보의 당위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회원국들의 의견이 모였다. DAC는 통계·데이터 개선, 지속가능재원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Review)을 추진하여 차기 예산작업계획(PWB 2027-30)에 반영할 계획이다.

② 데이터 및 통계 품질 관리

통계작업반(WP-STAT)과의 공동 세션에서는 젠더 마커 데이터의 품질 문제가 제기되었다. 분석 결과 2022-23년 기준 젠더 마커가 부여된 사업의 절반 이상이 SDG5 목표와 불일치하는 등 데이터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국은 젠더 마커 핸드북을 개정하고, 스크리닝 범위를 기타 공적재원(OOF) 및 민간지원수단(PSI)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 사례로는 스웨덴(SIDA)의 3단계 품질 검증(QA) 시스템(자동 검증-수시 분석-심층 검토)이 소개되었다.

평가(Evaluation) 측면에서는 성평등을 독립된 평가 기준(Criteria)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일관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기

존 평가 기준 내에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접근이 공유되었다. 독일은 과거 정책 평가 결과, 성평등을 옹호하는 정치적 수사(Rhetoric)와 실제 이행(Reality) 성과 간에 간극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③ 성평등 프로그램 평가 방법론

평가네트워크는 성평등의 중첩적이고 교차적인 특성상 이를 별도의 독립적인 평가 기준(Criteria)으로 분리하여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대신 기존의 평가 기준인 일관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의 항목 내에서 성평등 관점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독일의 경우 2014-2021년 개발협력 정책을 평가한 결과, 국제무대에서 성평등을 옹호하는 정치적 수사(Rhetoric)에 비해 실제 이행(Reality) 성과는 낮게 나타나는 간극을 확인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의 확고한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공유했다.

④ 주제별 심층 논의: GBV, 기후변화, WPS

젠더기반폭력(GBV) 및 성착취·학대·희롱(SEAH) 종식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적 접근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교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키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기후변화 세션에서는 여성을 단순한 기후 재난의 피해자가 아닌 해결의 주체로 인식해야 함이 강조되었으며, 브라질 등은 COP30 협상 과정에서 기후 행동 데이터의 성별 분리(Disaggregated data)와 STEM 분야의 성별 불평등 해소를 우선순위로 제안했다. 또한 분쟁 및 취약성(WPS) 의제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시 성 주류화(Gender-responsive recovery) 관점을 도입하고 아프가니스탄 등 권위주의 정권하의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장기적이고 유연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금번 회의는 회원국 간의 기술적 협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공개 회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2025년 이후 예상되는 ODA의 구조적 감소에 대비한 DAC 차원의 시스템 개혁 방향이 공유되었다. 특히 통계작업반과의 협력을 통해 젠더 마커의 품질을 검증하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평가 방법론에 있어서는 성평등 성과를 기존 평가 프레임워크 내에서 어떻게 실증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뤘다.

공개 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인 성평등 반발 기조에 맞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회원국들은 ODA 삭감의 대안으로 성평등 채권 발행, 혼합 금융 활성화 등 민간 재원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기후 위기와 분쟁 상황에서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데이터를 세분화하여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성평등네트워크는 향후 작업 우선순위로 우수 성과 사례의 발굴과 2026년 성평등 개발재원 보고서 발간을 설정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4. 정책적 시사점

정량적 성과 측정 방법론의 고도화: 회의에서 지적된 젠더 마커와 SDG 지표 간의 불일치 문제는 정교한 측정 모델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평가(Evaluation) 프레임워크 재구성: 성평등을 독립 변수가 아닌 기존 평가 기준 내 매개 변수로 통합하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추상적 개념인 '여성 임파워먼트'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실증적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이는 독일 등이 지적한 '수사(Rhetoric)와 현실(Reality)의 괴리'를 증명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ODA 논리 개발: ODA 삭감 기조 속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당위성에 호소하기보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지수(SIGI 등)를 연계하여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증거 기반(Evidence-based) 접근이 필수적이다.

한국형 젠더-넥서스 모델 정립: 기후변화(Green) 및 디지털 전환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젠더 관점을 결합한 '넥서스 ODA'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성과 관리 지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보건·사회개발팀
(chsnam@koica.go.kr)